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선도 도약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 익산시, 거주부터 · 식사 · 의료 · 상담까지... 재가 생활 유지 위한 맞춤형 지원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선도 도시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우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슈퍼비전 기관'에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우수한 실적을 거둔 10개 지역을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사례관리사업이다. 재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7개 지역에서 제4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는 슈퍼비전 기관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제공과 교육 등을 수행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규 사업 추진 지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4일에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방문해 익산시의 사례와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했다.

지난달 3일에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의료급여 담당자 워크숍에 초청받아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익산시는 제4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대상자 발굴 실적이 탁월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정착시켰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의료수급자 및 가족 등 30여명



을 대상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밀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센터 등을 통해 가사·간병 돌봄 및 물품 순환 등을 추진해 지역 자원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배분 효율화를 이뤄냈다.

이 같은 노력은 의료비 절감 효과와 대상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관리 중인 대상자의 1인당 의료비가 80% 이상 감소해 높은 절감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재가 생활 만족도는 89%, 재가 생활 유지율은 89%로 나타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73%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익산시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평가 기관포상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익산시가 단기간 내 사업 성과를 이런 비결은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통

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재가 생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이다.

환자와 가족 모두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 퇴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실제 올해 3월 재가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가 된 한 남성도 장기 입원자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됐다.

사업실제 후 뇌경색까지 온 대상자는 거주지가 없어 오랜 시간 노숙생활을 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자 요양 병원에 장기입원했다.

익산시는 임시 거처로 퇴원하게 한 후 11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정착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거주지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생활기전 및 가구 △가사 돌봄 △식사 △병원 이동 △정신건강 문제 상담 및 관리 등을 지원해 현재까지 스스로 재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는 "사업 실패와 가족 간 단절로 병원 생활에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다"며 "익산시 덕분에 쾌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고 안정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어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오는 7월 전국 확대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퇴원한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전문가 40여명 참여... 미래성장 이끌 국책사업 발굴 주력

익산시가 미래 도시 경쟁력을 이끌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시는 4일 지역산업정책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2024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오는 5일 지역농업·농촌분과 회의에 이어 7일 지역공간정책분과 회의, 11일 지역보건·복지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2024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은 △지역산업정책분과 △지역농업·농촌분과 △지역공간정책분과 △지역보건·복지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익산시 소재 R&D기관 협의체는 별도로 운영한다.

포럼에는 전북연구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관계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은 도내 산업자원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 협회이다.

이들은 국정과제 및 부처별 주요 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모색

하고 신규 국가예산사업과 시정에 반영할 주요 정책을 발굴한다.

또한 기존 발굴된 사업 중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논리를 강화하고 구체화해 국책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보건·의료·복지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 발굴에도 힘쓴다.

전문가포럼에서 발굴된 사업은 2026~2028년 국가예산사업 반영 및 익산시 성장동력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익산시민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을 통해 국립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과 나비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 지역 현안을 국가 예산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할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 강소특구, 혁신 기술로 신성장 동력 확보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 '전략기술사업화' 2개 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에 군산 강소특구 입주기업인 '모나(주)'와 '에프엔에스텍'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는 2024년 특구 육성사업이 개편되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X(제품화·양산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구재단에서는 19개 특구(광역특구 5개, 강소특구 14개)를 대상으로 전략기술사업화(글로벌형)를 공모했고, 그 결과 5개 사업 선정 중 군산 강소특구 기업의 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모나(주)와 에프엔에스텍은 각각 3년간 사업비 13억7,500만원(△1차년도 3억7,500만원, △2차년도 5억원, △3차년도 5억원)을 지원받아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과 '이차전지 양극재용 파우치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모나(주)는 AI 및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기반, 이차전지 연료전지 등의 성능평가 장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에프엔에스텍은 이차전지 양극재용 파우치 전문기업으로 고기능성·고부가 파우치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차전지용 복합필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과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제12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 모집

군산시는 청년의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축제에 반영하여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오는 6월 21일까지 시간여행축제 청년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SNS 활동 및 축제 관광 분야에 높은 관심을 지닌 청년(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군산시 소재 대학교 학생(휴학생 포함)이다. 모집인원은 총 12명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이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축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등에서 축제 홍보, △축제 기간 내 종합안내소 지원과 축제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서포터즈 활동 시 △활동 인증서 발급 및 시(市) 소관 관광 공모전 가점, △청년 네트워크 활동 및 관광 창업 컨설팅 지원 연계, △활동 참석 시 활동 수당 및 사후 탐방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청년 서포터즈 신청은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https://festival.gursan.gokr>)에서 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1일까지이며, 모집공고를 거쳐 면접 심사를 통해 7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시간여행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참여형 축제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33)에 문의하거나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https://festival.gursan.gokr>), 군산시 홈페이지([www.gursan.gokr](http://www.gursan.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2번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Hello Modam, 군산시간여행축제 근대놀이'를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 시청광장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전략적 진로설계 고교생 학부모 특강

군산시는 6월 15일 오전 10시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고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수시·정시 분석 및 2025·2026 대입대비 방안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작년 중학생 대상 특강 당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입시 전문가인 정호원 장학사 원장이 다시 한번 진행을 맡았다.

정호원 장학사는 2024년 수시·정시 분석을 통해 2025~2026년 대입 대비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학생부 관리, 대학별 모집 요강 사례별 합격 컨설팅 등 입시에 관한 전반적인 인내와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특강에 관심있는 고교생, 학부모, 교사 등 15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접수에 참가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유천도서관, 미술과 함께 인문학 강연 운영

익산시립유천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백문이불여일견, 미술에서 위로와 치유를 찾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의 강연·체험·탐방 연계 사업이다. 유천도서관은 지난달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유천도서관은 6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술치료가 더해진 인문학 강연을 총 10회 진행한다. 미술사와 작품 감상, 미술치료를 병행해 예술의 폭과 깊이를 향유하는 경험을 넓히고 지친 삶에 대한 위로, 자아성찰, 심리적 충족의 시간을 제공한다.

수강생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유천도서관 누리집([lib.ksn.gokr/jc/](http://lib.ksn.gokr/jc/))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주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